

영어 관계사절 습득 과정에서 한국 L2 학습자들의 공백에 대한 민감성 연구*

조우영

(전북대학교)

Cho, Wooyoung. (2021). Korean L2 learners' sensitivity to gaps in acquisition process of English relative clause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9(3), 67-8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1) to explore the Korean L2 learners' acquisition order of 9 types of English relative clauses, classified by the grammatical role of both the head (nominal that the relative clause modifies) and the gap within the relative clauses; and (2)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Korean L2 learners' comprehension and the distribution of relative clauses in English textbooks. Eighty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The major findings of this experimental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rder of comprehension is SO > OO > OS > SS, which is not similar to those shown in the previous studies. Second, the embedded depth of subject gaps as well as word order of L1 made Korean L2 learners difficult to comprehend English relative clauses. Third, both the distribution and the frequency of relative clauses in English textbooks seem not to reflect the comprehension pattern of Korean L2 learners properly.

주제어(Key Words): 주어 공백(subject gaps), 목적어 공백(object gaps), 구조적 거리(structural distance), 내포 깊이(the depth of embeddedness), 어순(word order)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87327).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이제 7차 교육개정 이후 영어 교육의 목표 중 하나가 구문 습득이 이루어져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영어의 중요한 통사 현상 중 하나인 관계사절에 대한 유형별 통사 구조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속 발화가 다양한 구문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기에 이를 확인하여 분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언어 습득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아동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중등학교 교실 수업 상황에서 언어습득 과정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어린인들이 언어를 습득할 때 모국어뿐만 아니라 제 2언어 및 외국어를 일정한 순서로 습득해 나간다는 사실들이 연구 발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어린이들은 형태소 습득, 인칭 대명사 습득, 여격 구문 습득 뿐만 아니라, wh-의문문과 관계사절 또한 유형별로 습득 순서를 갖는다. EFL 환경에서 한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습득에 관한 연구 결과는 L2 학습자들이 보편적 습득 순위 가설(general acquisition order strategy)을 따른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제 2언어로서의 관계사절 습득에 일정한 발달 순서가 있으며, 모국어 습득과 제 2언어 습득의 과정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어린인들이 모국어 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습득할 때 일정한 순서로 습득해 나간다고 제안한 선행 연구에 기본을 두고, 제 2언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가의 여부를 알아 보고자 한다. 또한, 영어 관계사절의 습득 단계가 우리나라 중학생들에게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 보기 위해, 관계사절의 이해도를 조사하고 이에 맞게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2. 영어 관계사절 습득연구

언어의 발달 과정에서 영어 관계사절의 유형별 통사 구조 습득은 어린이에게 있어서 비교적 늦은 발달 단계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4세에서 5세 사이에 통사 구조 중 명사구를 여러 개 연결하여 사용하는 능력이 발달하며, 이 시기에 종속절과 관계사절을 습득한다. 비록 3세 무렵에 관계사절을 포함한 문장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관계사절의 통사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관계사절을 19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대등 접속(coordination), 접속사(conjunction), 보문소(complementizer) that 이후에 습득된다(Bloom et al. 1980). 이처럼, 관계사절은 어린이들의 발화에서 매우 드물기 때문에, 주로 실험 연구를 바탕으로 실시되었다.

실험 연구는 관계사절을 관계사절이 수식하는 핵(명사)과 관계사절 내에 있는 공백의 문법적 역할과 해석에 따라 분류하여 4가지 유형(type)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¹⁾.

- (1) a. SS Type: 주어 핵, 주어 공백
The gorilla [that ____ bumped the elephant] kissed the sheep.
- b. SO Type: 주어 핵, 목적어 공백
The turkey [that the gorilla patted ____] pushed the pig.
- c. OS Type: 목적어 핵, 주어 공백
The kangaroo kissed the camel [that ____ shoved the elephant].
- d. OO Type: 목적어 핵, 목적어 공백
The turtle hit the pig [that the giraffe touched ____].

(1)의 유형 외에도 5가지 유형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VP내의 PP가 포함된다.

- (2) a. SP Type: The giraffe [that the turkey yelled to ____].
- b. OP Type: The crocodile touched the gorilla [that the zebra yelled to ____].
- c. PS Type: The turtle shouted to the camel [that ____ pushed the kangaroo].
- d. PO Type: The horse spoke to the turtle [that the sheep touched ____].
- e. PP Type: The kangaroo whispered to the turkey [that the zebra shouted to ____].

이 연구에서는 먼저 영어 관계사절의 통사 구조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한다. 그리고 이론적 배경을 통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어린이들의 관계사절 습득과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어린이들의 관계사절 습득, 그리고 한국어의 관계사절 습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 본다. 이를 토대로, 한국 L2 화자가 어떤 습득 단계를 가지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두 번째 목표로, 영어 L2 학습자들의 기본 학습 자료인 교과서에는 관계사절을 이용한 문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대부분의 관계사절 발달 연구에서는 (1)의 4가지 유형만 논의되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한국 중학생들이 영어 관계사절을 습득할 때 모국어인 한국어의 어순과 공백의 내포 깊이가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VP에 PP가 내포된 (2)의 5가지 유형을 추가하여 9가지 유형을 다루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영어 관계사절의 통사 구조

관계절(relative clause)은 아래 (3)에서와 같이 주절의 명사 또는 명사구를 수식하는 종속절(subordinate clause)이다.

- (3) a. Harry visited the restaurant [which Sally recommended].
 b. Harry visited the restaurant [that Sally recommended].
 c. Harry visited the restaurant [Ø Sally recommen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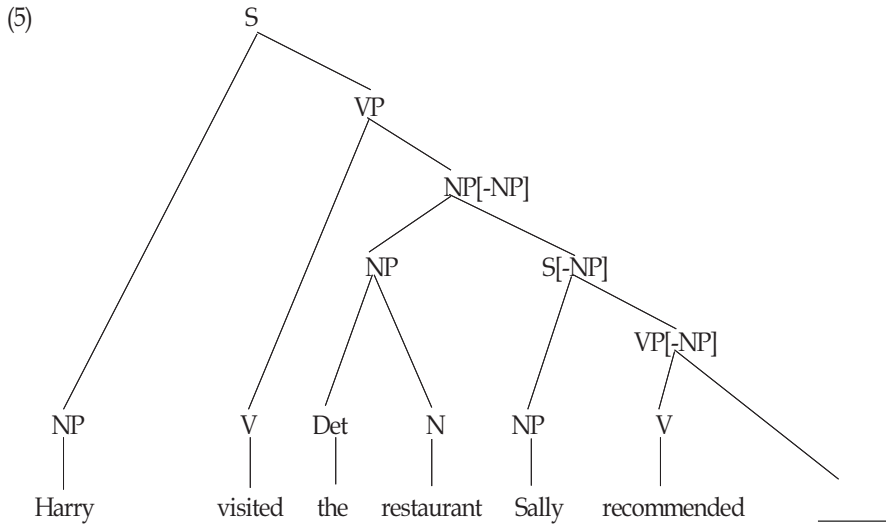
영어에서 관계절은 관계대명사(that, who[m], which)와 같은 관계대명사로 시작되고, 수식되는 명사와 공지시되는 공백(gap)을 포함한다. 관계사절은 자신들이 한정하는 핵(head)과 결합한다. (3)에서 관계사절은 음식점들의 집합에서 Sally가 추천했던 특별한 음식점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또한, 관계사절은 핵과 일치하는 공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Sally가 추천했던 것은 상점이나 백화점이 아니라 음식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계절 형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이동(movement)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자질 이동(feature-passing) 분석이다. 전자는 생성문법의 구조주의 접근법에서 관계사절 내에 있는 공백은 wh-구의 이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설명된다.

- (4) a. DS: [IP The book [CP e [IP I borrowed which from the university's Library is now out of print]]].
 b. SS: [IP The book_i [CP e [IP I borrowed which from the university's Library is now out of print]]]].

(4a)에서 *which*는 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여 (4b)에서와 같은 표면 구조가 나온다. 관계사절에서 이동은 의미역 표시된(θ -marked) 논항 위치에서 출발하여 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다. Wh-요소가 이동하면서 그 자리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과 이동한 요소, 흔적의 선행사는 동일지표(co-indexed)된다. 즉, 관계대명사와 선행사는 같은 사람 또는 사물을 지칭해야 한다.

후자는 자질이동(feature-passing) 분석으로, 공백이 아래 (5)에서 보듯이, [-NP] 자질에 의해 '사라진(missing)' NP의 위치를 표시한다. 그 자질은 관계사절의 핵(head)인 *the restaurant*과 짝을 이룰 때까지 상위로 이동한다.



(5)에서 관계사절 내에 있는 사라진 NP와 결합된 [-NP] 자질은 VP에 의해 상속되고, 내포절(embedded clause) S에 의해 상속된다. 이때 [-NP]자질은 사라진 NP자질과 동일한 *the restaurant*과 결합하면서 없어지게 된다.

이 연구는 모국어로서 영어를 습득할 때와 동일하게 외국어로서 영어를 습득할 때도 관계사절의 습득에 순서가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 보고, 과연 우리나라의 중학생들에게도 이 습득 순서가 적용되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 습득 연구의 일반적인 결론은 어린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할 때 일정한 발달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Brown(1973)은 아동들이 모국어 습득에 있어 고정된 습득 순서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O'Grady(1997)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어린이는 형태소 습득, 인칭 대명사 습득 및 여격 구문 습득 뿐만 아니라, *wh*-의문문과 관계사절 또한 유형별 습득 순서를 갖는다고 한다. 또한, 한국인 L2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습득에 관한 연구들도 외국어로서 영어 습득 순위가 일정한 순서로 되어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O'Grady, 2003; Clancy, Lee & Zoh, 1986; Cho, 1999).

이상의 연구들에서 제 2 언어로서 관계사절의 습득에 일정한 발달 순서가 있으며, 모국어 습득과 제 2 언어 습득의 과정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관계사절 또한 일정한 순서로 습득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들이 영어 관계사절 구조를 어떤 순서로 학습하며,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의 습득 순서와 일치하는가를 비교해 보고, 교과서에 제시된 비율대로 구문 학습을 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모국어 관계사절을 습득하는 발달 단계에 대한 연구와 제 2 언어 습

독과의 연관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중학교 2학년년부터 3학년 까지의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설문지에 의해 영어 모국어 화자의 관계사절 습득 순서와 비교하여 관계사절에 대한 이해도를 살펴 본다. 셋째,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관계사절의 분포 상황을 분석하고, 관계사절의 빈도수와 이해도의 관계를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된 결과를 종합하여 영어 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한다.

2.2. 선행연구

2.2.1. 모국어로서의 관계사절 습득

Sheldon(1974)은 3~5살된 33명의 영어 화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SS와 OO유형이 SO와 OS 유형보다 훨씬 더 쉽게 습득된다고 보았다. 그는 SS와 OO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온 이유를 유사기능 가설(Parallel Function Hypothesis)로 설명한다. 즉, 상호지시관계에 있는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서로 같은 통사적 기능을 가진 유형(SS & OO)이 다른 문법 관계가 포함된 유형(OS & SO)보다 습득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 그녀가 실험연구에서 사용한 문장 유형은 (6)과 같고 평균점수는 <표1>에서 볼 수 있다.

- (6) a. The dog [that ____ jumps over the pig] bumps into the lion. (SS)
 b. The lion [that the horse bumps into ____] jumps over the giraffe. (SO)
 c. The pig bumps into the horse [that ____ jumps over the giraffe. (OS)
 d. The dog stands on the horse [that the giraffe jumps over ____]. (OO)

표 1. 세 집단의 정확한 반응에 대한 평균점수(Sheldon 1974: 276)

그룹	SS 유형	SO 유형	OS 유형	OO 유형
I	1.0	0.18	0.54	1.36
II	1.45	0.73	0.91	1.64
III	2.27	0.64	1.17	1.55
평균	1.58	0.52	0.88	1.52

Tavakolian(1981a)은 3~5살된 24명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실험한 결과, SS와 OO 유형(78%와 38%)이 가장 습득하기가 쉽지만, Sheldon과는 달리 SO유형(21%)이 OS유형(19%)보다 더 습득하기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실시한 실험연구에서 문장 유형과 평균점수는 (7) 및 <표 2>와 같다.

- (7) a. The sheep [that ____ jumps over the rabbit] stands on the lion. (SS)
- b. The lion [that the horse kisses ____] knocks down the duck. (SO)
- c. The duck stands on the lion [that ____ bumps into the pig]. (OS)
- d. The horse hits the sheep [that the duck kisses ____]. (OO)

표 2. 세 집단의 정확한 반응에 대한 이해도(Tavakolian 1978: 50-52)

그룹	SS 유형	SO 유형	OS 유형	OO 유형
I	18	5	1	8
II	16	6	4	9
III	22	4	9	10
평균	78%	21%	19%	38%

그녀의 분석에서 OS유형이 가장 적게 나온 이유는 일종의 결합절 전략(Conjoined Clause Strategy)으로써, 어린이들이 OS유형을 등위절 구조(NVN-and-VN)로 이해하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 (8) a. OS 유형: 실험 문장, 성인의 해석
 The lion stands on the duck [S that ____ bumps into the pig].
- b. 등위절 구조: 어린이의 해석
 The lion [VP stands on the duck] and [VP bumps into the pig].

또한, de Villier, et. al. (1979)는 3~6세된 114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어린이 화자들은 SS유형을 가장 잘 습득하며 SP와 SO유형에 가장 빈약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어린이들은 NP+VP+NP 구조를 영어의 문장 구조와 같이 AGENT+ACTION+OBJECT 순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SP와 SO 유형은 NP+V+NP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실험 연구에서 사용한 문장 유형과 그 결과는 다음 (9) 및 <표 3>과 같다.

- (9) a. The gorilla [that ____ bumped the elephant] kissed the sheep. (SS)
- b. The turkey [that the gorilla patted ____] pushed the pig. (SO)
- c. The kangaroo kissed the camel [that ____ shoved the elephant]. (OS)
- d. The turtle hit the pig [that the giraffe touched ____]. (OO)
- e. The giraffe [that the turkey yelled to ____]. (OP)

- f. The crocodile touched the gorilla [that the zebra yelled to ____]. (OP)
- g. The turtle shouted to the camel [that ____ pushed the kangaroo]. (PS)
- h. The horse spoke to the turtle [that the sheep touched ____]. (PO)
- I. The kangaroo whispered to the turkey [that the zebra shouted to ____]. (PP)

그들의 실험연구에서 어린이들은 목적어 공백을 주어공백에 비해 어려워 했을 뿐만 아니라, 공백이 전치사의 목적어 위치(VP의 PP에 내포된 공백)에서 발생한 유형(예; SP, OP 및 PP)을 가장 어려워 했다고 한다.

표 3. 6개의 질문에 대한 정답률(de Villiers, et al. 1979)

NP+V+NP 순서							NP+NP+V 순서	
SS	OS	OO	OP	PS	PO	PP	SO	SP
3.91	3.90	3.74	3.57	3.07	3.43	3.35	2.98	2.47

2.2.2. 제 2 언어로서의 관계사절 습득

O'Grady(1997)는 어린이들이 관계사절을 어떻게 습득하는 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관계사절 안에 있는 공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아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의 실험 연구에서 주어 공백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어린이들은 SS유형과 OS유형을 각각 91%, 그리고 OS 유형에서 75%로 인식한 반면에, OO유형과 SO 유형에서는 63%와 45%의 낮은 인식 비율을 보였다.

표 4. 주어와 목적어 공백에 대한 이해도(O'Grady 1997: 179)

주어 공백		목적어 공백	
SS 유형	OS 유형	OO 유형	SO 유형
91	75	63	45

SO유형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오류는 관계화된 직접 목적어를 그 절의 주어 공백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10) SO 유형에서 흔한 오류

실험 문장

The lion [that the horse kisses ____] knocks down the duck.



목적어 공백

어린이들의 해석

The lion [that ____ kisses the horse] knocks down the duck.

↑
주어 공백

O'Grady는 공백과 핵간의 '구조적 거리(structural distance)'라는 용어로 주어 공백이 목적어 공백보다 핵과의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더 쉽게 습득된다고 설명했다. 이 구조적 원리에 따르면, 주어 공백이 핵과의 거리가 문장구조상 목적어 공백보다 가깝기 때문에 목적어 공백보다 쉽게 해석된다는 것이다.

- (11) a. 주어 공백을 가진 관계절(구조적 거리 = 1)
a duck [S that ____ hugs a rabbit]
- b. 직접 목적어 공백을 가진 관계절(구조적 거리 = 2)
a wolf [S that a dog [VP hits ____]]
- c. 간접 목적어 공백을 가진 관계절(구조적 거리 = 3)
a cow [S that a bear [CP gives a kiss [PP to ____]]]

그는 핵과 공백 사이에 존재하는 최대투사범주(Maximal Projection Category)의 수에 따라 구조적 거리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위의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백과 핵 사이의 최대투사범주가 각각 (11a)는 1개(S), (11b)는 2개(S, VP), (11c)는 3개(S, VP, PP)이므로, (11a)의 주어 공백이 (11b)의 직접 목적어나 (11c)의 간접 목적어 공백보다 구조적 거리가 더 가깝고 핵과의 연결이 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3. 한국어의 관계사절 습득

Clancy, Lee and Zoh(1986)는 6~7세된 30명의 한국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실험에서 관계사절 습득에 공백뿐만 아니라 어순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 (12) a. 주어 공백을 가진 관계사절 (78.25% correct):
[____ 오리를 넘어뜨린] 토끼-가 다람쥐-를 쫓아-갔다.
duck-AC knock.down-REL rabbit-NOM squirrel-AC chase-PST-DECL.
'The rabbit that knocked down the duck chased the squirrel.'
(SS 유형)
- b. 목적어 공백을 가진 관계사절 (68.25% correct):
[토끼-가 ____ 넘어뜨린] 오리-가 다람쥐-를 쫓아-갔다.

rabbit-NOM knock.down-REL duck-NOM squirrel-AC chase-PST-DECL
 'The duck that the rabbit knocked down chased the squirrel.'
 (SO 유형)

(12)는 주어 공백을 가진 (12a)의 문장이 목적어 공백을 가진 (12b)의 문장보다 더 쉽게 습득하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다음의 (13)에서 주어 공백을 포함하는 유형에 대해 매우 빈약한 습득 비율을 보여, 어순이 관계사절 습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다람쥐-가 [____ 토끼-를 넘어뜨-린] 오리-를 쫓아-갔다.
 squirrel-NOM rabbit-AC knock.down-REL duck-NOM chase-PST-DECL
 'The squirrel chased the duck that knocked down the rabbit.'
 (OS 유형)

Clancy, Lee & Zoh는 (13)의 SO 유형은 NP-주격+NP-목적격+V의 구조로서 마치 S+O+V 구조처럼 보이므로, 어린이들이 잘못된 해석을 한다고 설명한다. 즉, '다람쥐(NP)가 토끼(NP)를 넘어뜨렸다(V)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또한, Cho(1999)는 4~7세된 40명의 한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에서 주어 공백(SS, OS, PS 유형)을 가진 관계사절이 목적어 공백(SO, OO, PO 유형)과 전치사의 목적어 공백(SP, OP, PP 유형)을 가진 관계사절 보다 더 쉽게 습득된다고 보고했다. Cho는 O'Grady가 제시한 공백과 핵 사이의 '구조적 거리(structural distance)'에 의해 전치사의 목적어 공백을 가진 관계사절이 습득상 가장 어렵다고 보았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이 연구는 한국 L2 학습자들의 영어 관계사절을 이해하는 능력의 정도, 즉 공백에 대한 민감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제 관계사절을 학습할 단계에 이른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2그룹으로 분류한다. 또한, 현행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관계사절의 분포를 검토하여 관계사절의 발달 과정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여기서,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는 관계사절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중학교 2학년 교과서가 시작점으로 선택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관계사절의 습득 순서를 조사하고, 현행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관계사절의 분포 형태를 분석한다. 이러한 실험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한국 L2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결과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사된 관계사절 습득 단계와 교과서에 나타난 관계사절 분포 형태에 의해

교육 현장에 필요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1. 연구의 가설

모국어로서의 관계사절 습득 연구는 관계사절이 수식하는 명사(핵), 핵과 관계사절 내에 있는 공백의 문법적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4가지 유형(SS, SO, OS, OO)과 9가지 유형(SS, SO, OS, OO, SP, OP, PS, PO, PP)의 습득 순서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Sheldon, 1974; Tavakolian, 1981; de Villiers et al., 1979).

또한, 제 2 언어로서의 관계사절 습득 연구는 관계사절 내에 있는 공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중심으로, L2 화자들이 영어 관계사절을 습득하는 순서를 알아 보았다(O'Grady 1997, 2003).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관계사절 습득 연구에서는 어순이 관계사절 습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Clancy, Lee, & Zoh, 1986; O'Grady & Archibald, 2004)2), 주어 공백을 가진 관계사절이 직접 목적어 공백을 가진 관계사절이 더 쉽게 습득된다고 보고되었다(Cho, 1999).

이 연구에서는 모국어로 영어를 습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어로서 영어를 습득하는 경우에도 이런 습득 과정이 있음을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한다.

- 가설 1: 한국인 L2 학습자의 언어적 능력은 영어 원어민 화자들의 습득과정을 따르며, L1과 마찬가지로 주어 공백이 목적어 공백보다 선호될 것이다.
- 가설 2: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 관계사절에서 공백을 해석할 때, L1과 마찬가지로 공백의 내포 깊이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 가설 3: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관계사절은 유형별로 정량적 분포를 이룰 것이다.

2) O'Grady & Archibald(2004, p. 284)는 우분지 언어인 VO 유형과 좌분지 언어인 OV 유형에서 나타나는 어순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i) Word order patterns

Constituents	order in VO language	order in VO language
P & NP	preposition-NP	NP-postposition
V & PP	verb-PP	PP-verb
V & manner Adv	verb-manner Adv	Manner Adv-verb
GEN & N	noun-genitive	Genitive-noun

영어는 SVO 유형으로 관계절이 명사 뒤(postnominal)에 위치하는 반면에, 한국어는 SOV 유형으로 관계절이 명사 앞(pronominal)에 위치하기 때문에 관계사절의 위치가 한국어와는 정반대이다.

3.2. 모집단의 설정과 표본의 추출

모집단은 관계사절을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추출은 W군 H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설 1은 4개반(80명)을 대상으로 하고, 가설 2는 H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 나타난 관계사절을 대상으로 하였다.

3.3. 연구의 범위와 제한

이 논문에서는 2020년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새로 개정된 영어 교과서 중에서 H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1종의 교과서만을 조사 연구하였다. 교과서에 나타난 영어 관계사절의 분포를 조사하여 선행 연구된 습득 과정과 일치되도록 분포되어 있는지, 또 한국 학생들의 습득 과정과는 어떤 일치를 보이는 지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성과에는 교과서의 내용도 영향을 미치지만 교사의 교수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교수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였다. 또한, 영어 관계사절 중에서 중학교 교과서에는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자유 관계사절 및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절을 제외하고, 제한적 용법의 관계사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3.4. 연구의 방법

가설 1과 2의 측정을 위한 실험으로 중학교 2~3학년 각 2학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각을 그룹 I (40명), 그룹 II (40명)으로 명명하고, 관계사절과 관련된 문항을 유형별로 구성하여, 전체 9문항을 1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테스트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중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연구의 대상에 포함된 1종의 교과서 내용 중의 어휘와 문장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를 개인별로 산출하고 각 그룹별로 관계사절 유형에 따라 개인별 점수를 합산하여, 관계사절 유형별로 각 그룹의 정답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 관계사절 유형별 각 그룹의 정답수에 의해서 관계사절 유형 빈도를 분석하였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년별로 각각 1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관계사절의 유형별 출현 빈도를 산출하였다. 표 5는 9개의 유형별 관계사절 문장이다.

표 5. 유형별 관계사절 실험문항

a. The man that knows us is waiting outside. (SS)
b. The man that we know is waiting outside.(SO)
c. I saw the man that knows us. (OS)
d. I saw the man that we know. (OO)

- e. The man that Mary shouted to married to the woman. (SP)
- f. The man wrote on the woman that I knew nothing about. (OP)
- d. Mary depended on John that solved the problem. (PS)
- h. John spoke to the woman that Mary met. (PO)
- I. John whispered to the woman that Mary shouted to. (PP)

4. 가설 검증

4.1. 가설 1 검증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결과를 각 그룹별 관계사절유형별, SS, SO, OS, OO 유형에 대한 정답수와 정답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6. 관계사절의 정답수와 정답율

그룹/유형	SS 유형	SO 유형	OS 유형	OO 유형
I	19	34	30	33
II	32	39	36	39
평균	59.9%	81.1%	73.3%	80.0%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정답수의 순서는 SO > OO > OS > SS이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를 제2외국어로 학습하는 한국 중학생들에게 있어서, SO 유형이 가장 쉽고, OO 유형이 OS 유형보다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의 결과는 이전의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지 않으며, 한국 중학생들은, 원어민 화자들이 주어 공백을 선호하는 것과는 달리, 모국어인 한국어 어순의 영향으로 목적어 공백을 선호한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그러므로 한국인 L2 학습자의 언어적 능력은 영어 원어민 화자들의 습득과정을 따르며, L1과 마찬가지로 주어 공백을 목적어 공백보다 선호할 것이다라는 가설 1은 기각되었다.

4.2. 가설 2 검증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결과를 각 그룹별 관계절유형별, SP, OP, PS, PO, PP 유형(PP가 VP에 나타나는 문장)에 대한 정답수와 정답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관계사절의 정답수와 정답율

그룹/유형	SP 유형	OP 유형	PS 유형	PO 유형	PP 유형
I	33	29	26	36	35
II	35	34	26	39	38
평균	75.5%	70.0%	57.7%	83.3%	81.1%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정답수의 순서는 PO > PP > SP > OP > PS이다. 이 결과는 한국 중학생들에게 있어서, PO와 PP, OP 유형이 가장 쉽고 PS 유형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PO와 PP 유형은 OP 유형보다 쉬운 것으로 보이지만, 정답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동사구에서 전치사를 생략하면, SP 유형은 SO 유형, PO, PP, OP 유형은 OO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PS의 가장 낮은 정답률은 표 5의 OS유형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표 6의 결과를 통해 동사구의 전치사가 중학생들의 관계사절 해석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1과 8-2는 SO, OS 유형 및 SP, PS 유형에 대한 G I 과 G II의 정답수를 비교하여, 공백의 내포 깊이의 영향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표 8-1. G I의 관계사절 정답수

G I	34(SO)	30(OS)
G I	33(SP)	26(PS)

표 8-2. G II의 관계사절 정답수

G II	39(SO)	36(OS)
G II	35(SP)	26(PS)

표 7과 표 8-1과 표 8-2의 결과는 동사구의 전치사(VP내의 PP)가 학생들의 관계사절 해석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2학년과 3학년 학생의 PS 유형에 대한 정답수를 비교하면, 고학년 학생이라도 공백의 내포 깊이에 따라 정답을 찾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S 유형의 경우에는 그룹 I의 2학년 학생과 그룹 II의 3학년 학생 모두 26명의 학생들만이 정답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즉, 주어 공백의 경우에는 내포 깊이가 깊을수록 핵과 공백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학생들이 관계사절을 적절히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인 L2 학습자들이 영어 관계사절을 해석할 때, 공백의 내포 깊이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4.3. 가설 3 검증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2학년과 3학년 각 1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관계사절의 유형별 분포를 조사해 보았다. 표 9는 교과서의 제한적 관계사절의 수를 나타낸다³⁾.

표 9. 관계사절의 유형별 분포 상황

그룹/유형	SS 유형	SO 유형	OS 유형	OO 유형	
I	0	0	13	6	(19 cases)
II	1	0	11	4	(16 cases)

다음의 (17)은 각각 SO 유형과 SS 유형으로 간주된다.

- (17) a. This is the picture that we bought in the market.
 b. There were 19 warriors who had passed their tests.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계사절은 3학년 교과서보다 2학년 교과서에 더 자주 등장한다. 이처럼 현행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관계사절이 드물고 다양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중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절한 습득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관계사절의 유형별 분포가 관계사절의 습득 단계에 따라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관계사절의 사용에 대한 원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관계사절은 유형별로 정량적 분포를 이룰 것이더라는 가설 3은 기각되었다.

3) 영어의 관계사절에는 다음 (i)에서와 같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Radford, 1988, p. 480).

- (i) A. Restrictive Relative Clauses
 a. I met the man who lives next door in town.
 b. The book that you lent me was interesting.
 c. I enjoyed the meal you made us.
 B. Appositive Relative Clauses
 a. John who was at Cambridge with me is a good friend of mine.
 b. Yesterday I met your bank manager, who was in a filthy mood.
 d. Mary has left home-which must be very upsetting for her parents.
 C. Free Relative Clauses
 a. What(ever) he says is generally true.
 b. You can have whichever one you want.
 c. Whatever happens, I'll stand by you.

(iB)의 동격 관계사절 및 (iC)의 자유관계사절 외에도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문장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iA)의 제한적 관계사절만을 다룬다.

5. 결론 및 제언

이 논문에서는 모국어로서 영어를 습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 2 언어로서 영어를 배울 때도 관계사절의 습득 순서가 있다는 것을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 보았다. 이제 관계사절을 학습하기 시작하는 우리나라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에게도 이 습득 단계가 적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 80명을 2그룹으로 나누어 영어 관계사절의 습득 순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현행 영어 교과서에서 관계사절의 분포 현황을 분석하고, 조사된 관계사절 습득 단계와 교과서에 나타난 관계사절 분포 형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본 결과, 한국 중학생들의 영어 관계사절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선행 연구들이 밝힌 습득 단계와 일치하지 않았다. 즉, 우리 중학생들의 영어 관계사절의 습득 순서는 선행연구들이 밝힌 영어 모국어 화자들의 관계사절의 습득 단계와는 다른 $PO > SO=PP > OO > SP > OS > OP > SS > PS$ 이었다. 이처럼 중학생들이 목적어 공백을 주어 공백보다 선호하는 현상은 모국어인 한국어의 어순이 영어 관계절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주어 공백이 동사구의 전치사구에 내포된 PS 유형의 정답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보아 중학생들이 관계사절을 해석할 때 공백의 내포 깊이도 어느정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중학교 교과서에서의 영어 관계사절의 분포와 출현 빈도는 중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험연구의 결과에 의하여, 한국 중학생들이 영어 관계사절을 유형별로 일정한 순서로 습득한다면, 교육 현장에 몇 가지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영어 학습의 기초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중학생들이 영어 관계사절에 대해서 일정한 발달 순서를 거처서 습득한다면, 이는 반드시 교과서의 제작에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관계사절이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구문이므로, 관계사절의 습득 단계에 맞도록 교과서에 많이 나타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관계사절의 유형에 따라 습득 순서가 다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학습이 쉬운 관계절부터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어 관계사절의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교재인 교과서에 관계사절 구문을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즉, 영어의 관계사절이 유형별로 습득 순서가 다르다면,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는 먼저 습득되는 관계사절 유형의 비중이 나중에 습득되는 관계사절 유형에 비하여 분포와 출현 빈도에서 높아야, 학생들의 이해 정도와 발달 단계에 더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어 교육의 목표 중 하나가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들 구문을 교과서에 체계적으로 잘 제시하고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서를 집필할 때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한다면, 교육 현장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Cho, S. (1999). *Th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Experimental studies on Kore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 Clancy, P., Lee, H., & Zoh, M. (1986). Processing strategies in th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Universal Principles and language specific realization. *Cognition*, 24, 225-262.
- de Villiers, J., Trager-Flusberg, H., Hakuda, K., & Cohen, M. (1979). Children's comprehension of relative clauses.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8(5), 499-518.
- O'Grady, W. (1997). *Syntactic develop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Grady, W., & Archivald, J. (2004). *Contemporary linguistic analysis: An Introduction* (5th ed.). Toronto: Pearson Longman.
- O'Grady, W., Lee, M., & Choo, M. 2003. A subject-object asymmetry in th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in Korean as a second languag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5(3), 433-448.
- Sheldon, A. (1974). The role of parallel function in th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in English.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3, 272-281.
- Slobin, D. (1973). Cognitive prerequisites for the development of grammar. In C. Ferguson & D. Slobin (Eds.), *Studies of child language development* (pp. 175-208).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Tavakolian, S. (1981). The conjoined-clause analysis of relative clauses. In S. Tavakolian (Ed.), *Language acquisition and linguistic theory* (pp. 167-187). Cambridge: The MIT Press.

Secondary Materials:

- Jung, C.-Y. et. al. (2021). Middle school English: 2nd year textbook. Seoul: Cheonjae-kyoyuk.
- Jung, C.-Y. et. al. (2021). Middle school English: 3rd year textbook. Seoul: Cheonjae-kyoyuk.

조우영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번지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강사

전화: (063)270-3199

이메일: chowooyoungkr@hanmail.net

Received on August 19, 2021

Revised version received on September 28, 2021

Accepted on September 30, 2021